

아동수당 100% 지급

아동·복지... 난임부부수술비 지원 대상 늘고 1세미만 의료비 ↓

9월부터 500가구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등

올해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9월부터 대상을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난임부부수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저출생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이달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보면 편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

나아가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부터 육아에 이르는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선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산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현재 외래 이용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21~42%인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절반을 밑도는 5~20%로 대폭 낮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신청일로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까지였던 사용기간도 1년까지로 확대된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52만원) 이하까지 늘어나면 3만7000여명(8만~11만7000명)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에 따라 2022년부터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설치 여부가 재량 사항이었다.

작년 10월말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 중 16.2%인 683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30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0~2세 보육료 단가는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6.3%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쓸 수 있는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된다.

지원 확대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이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대상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전체 3만9000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20%(8000여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을 위반했을 때 평가등급이 최하위로 자동 조정된다. /뉴시스

하복부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의료... 희귀질환자·청년세대 건강검진 혜택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이 2주년을 맞는 올해부터 상복부에 이어 하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작년 4월 김(남·살개)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올해 상복부에는 소장·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10월 뇌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이어 안면·부비동 등 두부와 경부(목) MRI 검사 또한 올해 상복부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그간 초음파와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 등

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뇨기나 하복부,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건강보험을 이용해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총치 치료에 사용하는데도 비급여로 남아 있던 광중합형 복합된 치 충전 충치치료는 이달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아 1개당 10만원 수준에 달하는 본인부담은 약 2만5000원으로 70% 이상 줄어들게 된다.

희귀질환자와 청년세대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의료비의 1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42%(275개) 늘어난다.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 지원 대상 질환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하고 권역별 거점센터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 세대원 등 719만명이 올해부터 검진 혜택을 받는다. 청년세대 우울증 조기 진단을 위해 현재 40·50·60·70세 때마다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사 항목을 20세와 30세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소상공인 폐업 지원 확대... 중기 기술침해 대응 강화

중소기업·소상공... 소상공인 특화 지원도

기존 소상공인 중 폐업을 원하는 이들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화 지원 역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정리해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기존 점포 철거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임대료 지원 규모가 작년 500명 수준에서 올해에는 2000명으로 늘어난다. 점포 철거시 지원한도에도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교육·사업정리컨설팅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소공인 특화 지원 등도 확대된다. 1월부터 소공인 밀집지역 내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공동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공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19개 업종에서 25개 전체 제조업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1만개의 소공인이 추가로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망이다. /뉴시스

소공인 밀집지역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도 1월부터 시행돼 소공인들의 생산시설 및 입주공간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소공인들에게 입주부터 기술지원,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에 2곳의 센터를 시범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곳 안팎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또 일자리 창출촉진자금도 신설돼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13일부터 시행돼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했을 경우 중소기업 처기업부에 신고하면 정부가 사실 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기업과 침해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권고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촉진자금도 신설된다. /뉴시스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 이동권 보장

교통... 조종사 양성 지원

정부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형 교통모형을 추진한다.

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농어촌, 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중교통은 지자체 업무로 간주돼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형버스(소형버스 등)는 기초지자체당 3억원,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등)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저소득층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달 2일부터 조종사 양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말까지 하늘드림재단을 설립하고 훈련생들의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액은 1억원 범위내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지급하게 되는데 이자는 약 3%이내에서 3년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뉴시스

2019년 1월 2일 수요일 전주매일

이달부터 최저임금 8350원... 산입범위 확대

고용·노동...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

이달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350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 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올해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

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뉴시스

'고창군민과 울력' 평이근민(平易近民)의 한 해 준비

▶ 유기상 고창군수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희망, 다산의 상징, 황금돼지 해입니다.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활기를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지방분권이 급물살을 타고,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추진 등 고창군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많습니다. 고창군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민여 고창군민과 함께 시대의 명령인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만들어가는 데에 헌신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창군이 한반도 새 역사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농생명 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를 향한 본격적인 노력을 당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농생명식품산업 중심도시, 품격있는 역사문화 생태관광 중심도시, 지식농사 잘 짓는 사남 키우노 도시, 나눔과 봉사로 촉촉한 복지도시, 함께 살리고 함께 잘 사는 상생경제, 울력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안전행정 등 6대 핵심전략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자랑스런 고창을 만들고, 군민들의 고향을 채우는 알찬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군민복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더



불어 사는 고창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고창읍성 도시재생과 동호권역 어촌 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해 군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도민체전과 한국지역도서대전도 성공적으로 치러내 천하제일강산 고창의 기를 살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고창군 공직자들은 군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될 것입니다. 돼지는 예부터 행운과 재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황금역시 재물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의 꿈과 기대를 거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더 친근하게 군민 속으로 들어가 군민과 울력하는 '평이근민(平易近民)'의 한 해를 준비하겠습니다. 고창 물건을 사고 지역기업을 키우며 '자랑스런 고창만들기 군민운동'에 모두 손잡고 울력하며 함께 갑시다. 군민이 하나가 되어 함께하면 우리 손으로 다시 한번 통일 한반도의 첫 수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기해년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순창' 만들 것

▶ 황숙주 순창군수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己亥年) 순창군의 사자성어는 '늘 정신치려 무슨 일이건 발미를 살피라'는 뜻인 '유시유기(惟時惟幾)'로 정했습니다.

올 한해도 유시유기의 뜻을 새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을 느끼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순창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등장한지 1,000년 하고 1년이 되는 해입니다. 천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선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새천년을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와 공직자들은 올해 예산 5천억 달성, 관광객 5백만 명 유치, 인구 4만명 달성이라는 3대 비전과 농업, 관



광, 문화, 교육, 복지, 경제 등 6대 역점분야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순창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창으로 만들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와 참살이발효 마을을 통한 장류와 미생물산업에 주력하고, 새로운 특화산업 개발과 친환경농업, 장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섬진강 뷰리온 연결사업, 강천산아간명소화사업, 수체합센터 건립, 동굴형 체험관 등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완공을 앞두고 있어, 관광유치에 많은 기대가 되는 한해입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지지치 않는 열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정을 운영하여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순창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에 매진

▶ 심 민 임실군수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19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는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민선 7기를 새롭게 시작한 뜻깊은 한 해로, 임실군은 민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격려와 격려에 힘입어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민선 7기의 합찬 출범과 함께 3년 연속 4000억 예산을 유지하며 건설한 재정기반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여대 가장 많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과 풍수해위험생물권 종합정비사업 등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의 국가예산을 대거 확보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내 번째로 열린 임실(니치)축제는 전국에서 35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임실(니치)는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어 지역경제를 선도했습니다.

지역전략 품목 재배농가과 전라식품 사업을 집중 육성하였고, 중심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활기찬 지역개



발을 추진하고 더불어 목정호와 성수산을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오수공공동물장묘시설을 유치하여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 육성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미래세대양성의 산실인 봉황인재학당도 개원 2년차를 맞이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군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시는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새해에는 경쾌한 수레를 타고 낮익은 길을 달린다'는 가경취속의 자세로 민선 6기 이뤄놓은 성과를 밑거름 삼아 민선 7기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며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수요일 전주매일